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한생의 땀이 어려있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업적으로 빛나는 나라이다.

조국 땅 그 어디에나 아버지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이어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의 심혼과 체취가 그대로 스며배여있고 창조물 하나, 재부 하나하나가 다 그이의 애국유산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은 온몸과 열정을 깡그리 다 바치는 무한한 헌신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자신의 위대한 실천으로 보여주시 절세의 애국자 이시다.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하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실천으로 보여주신 애국의 립장과 자세이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과 인민이 있었고 나라와 민족의 래일을 위해 뿌리로 사는것이 그이의 인생관이었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그이의 제일가는 기쁨이요 락이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한 조국과 사랑하는 인민을 지켜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수호의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었고 인민들을 두고 생각이 많으시였지만 부강할 조국의 래일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신것이였다. 마음속으로는 퍼놓물이 흘렀지만 나라에 있던 돈의 전부를 고도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신것은 변죽거리는

열화같은 애국헌신

남의 기계를 사오는것보다 조국의 힘을 키워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려는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가 안아온 대용단이었고 최상의 선택이었다.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위유기도 하시고 살구나나무나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이나 인민군부대들의 병영을 보시면 환히 웃으시며 살구나무동네, 감나무동대라고 부르곤 하신 장군님

이시다.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가 안아온 대용단이었고 최상의 선택이었다.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위유기도 하시고 살구나나무나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이나 인민군부대들의 병영을 보시면 환히 웃으시며 살구나무동네, 감나무동대라고 부르곤 하신 장군님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고 습관적으로 하신 말씀 마디마디에 인민의 요구와 리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신 인민사랑의 세계가 그대로 비껴있는것이였다. 애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이고 투신이지만 오늘날이나라 래일을 위해 한생을 바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한생을 사랑해도 다 못하는것이 조국이고 한생도록 헌신해도 만족을 몰라야 하는것이 애국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근로자들

인민의 꿈이 현실로 꽃피는 나라

모든것이 근로하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에서 인민의 꿈과 리상이 나날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불과 몇년도 일터는 사이에 알려진 창건지리와 풍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옥류자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러진 이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은 인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평양의 풍치수려한 명당 자리에 자리잡은 창건지리살림집들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은 노동자, 사무원, 교원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다.

합숙생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게 꾸러진 침실들과 목욕탕, 연회장같은 식사실, 체육 및 유희오락을 마음껏 할수 있는 공원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손색없이 꾸러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은 너무도 황홀하여 노동자들의 궁전, 호텔로 불리우고있다.

동해바다기슭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역시 아이들의 꿈과 리상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꾸러져 이곳을 찾은 야영생들의 찬란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정녕 이 모든것은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황홀한 풍경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찾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사람들모두가 사회의 주인으로서 궁지없는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국가의 혜택속에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인민》, 《조선은 예수가 와도 할 일이 없는 인간천국》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평도아래 건설의 대전설기가 펼쳐지고 사회주의 문명국의 실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위성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음악원과 애국원이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상건설과 함께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되고있다.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미래사랑, 후대사랑이 있어 오늘날 공화국의 방방곡곡에서는 사회주의만세소리,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윤명선

공화국창건 66돐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노래 《조국찬가》의 선율이 울려 퍼진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 떼어준 정든 고향집트락 조국이여라 ... 들으면 들을수록 그 무엇이라 표현할길 없는 숭엄함이 가슴속에 짝 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조국이란 무엇이던가. 고향마을 정든 집이던가, 그리운 얼굴들이던가. 인간에게 있어서 조국보다 더 귀중하고 신성한것은 없다.

하기에 인류문화사의 갈피를 돌이켜보면 조국에 대한 예술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세계적명작들중에서도 조국주제의 작품들이 가장 아름다운 별무리로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에 대한 숭고한 감정이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진실한 생활세부들과 누구나 알기 쉬운 시어들로 형상된 《조국찬가》의 가사는 되새겨볼수록 솟구치는 애국의 감정과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격정을 승화시키며 깊고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얼마전 단마르크에서의 예술공연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금성학원 학생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의 첫 공연은 〈조국찬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글씨객석을 보니까 단마르크사람들이 〈조국찬가〉의 선율을 외우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국찬가〉야말로 외국인들도 순간에 감동시키는 진짜명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북유럽땅에 조선열풍을 일으키고 돌아

수필

노래 《조국찬가》를 들으며

은 나 어린 학생들의 심정만이겠는가. 누구나 창조와 건설로 약동하고 영광과 행복으로 가슴벅찬 오늘의 현실을 돌이켜볼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여이 사회주의만복이 꽃피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이 어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

정녕 이 땅의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

몸소 시공주가 되시고 설계가 되시어 형성안만 해

도 백설여차레나 지도해주시며 피약벌 내려조이는 무더운 낮에도,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건설현장을 찾으시어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완공시켜주신 문수물놀이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을 다 전해준다.

쏟아지는 비에 옷설이 젖는것도, 신발에 흙이 묻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옥류자동병원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도 못다 주신것이 있으신

직공장 노동자합숙에도, 완공을 앞두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위성과학자거리에도 그이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이 땅에 이루어진 꿈같은 현실들은 인민들에게 기여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불변의 신념이 낳은 거창한 창조물들인것이다.

조국을 생활의 보금자리, 운명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 가고있는 인민이 제일 바라

는것은 이 땅우에서, 이 하늘아래서 자기가 소원하던 모든것을 이루는것이다. 인간이 조국을 사랑하는것은 조국에 자기의 모든 꿈을 엮었기때문에 아니겠는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몇몇하게, 인간답게 살고싶은 녀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서로서로 화목하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싶은 소망, 후손들의 운명에 대한 근심걱정이 없이 살고싶은 소원... 인민은 이 꿈으로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조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것이이다. 인민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랑할수 있는 진정한 조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노래 《조국찬가》를 들으며 누구나 그토록 격정에 젖어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공화국은 영원히 굳건하며 인민의 모든 리상과 꿈은 이 땅우에 반드시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리라는 진리를 심장깊이 철결한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애국의 열정을 끝없이 바쳐가고 있는것이다.

람홍색공화국기 나뭇기는 이 땅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녀념, 우리의 꿈과 리상을 기여이 이룩하리라. 우리의 슬기, 우리의 금은보화, 우리의 힘으로 이 조선은 새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만들리라. 인민의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담은 노래, 위대한 김정원수님의 애국가 《조국찬가》는 높이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

본사기자 김춘경

오늘도 이어지는 인민사랑의 길

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 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음성이 오늘날도 공장의 기계동음소리와 함께 메아리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자취가 새겨진 공장, 기업소에서 원수님께서 심중에 새겨안으시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로고를 돌이켜보시며 그이께서는 장군님의 그 인민사랑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실 마음속의지를 굳게 가다듬고계시는것이이다.

장군인에 대한 원수님의 추억은 단순한 한순간의 추억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끝없는 사랑을 부여준 위인의 생애가 깃든 성스러운 력사이며 그이의 사랑, 그이의 애국의 땀으로 인민을 그라안고 영원한 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실 미래의 반영인것이다.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으로 그이와 마음속대화를 나누시며 강성국가 최후승리를 향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체험하고있으며 바야흐로 다가올 희망찬 래일을 확신하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